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4. 4. 1.(월) 14:00 ~ 15:05

2. 회의장소 :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

3. 출석위원 : 위 원 장 (전주비전대교수) 고 봉 수

위 원 (전북대교수) 유 남 희

위 원 (前시의원) 허 옥 희

위 원 (JTV전주방송) 김 진 형

4. 출석의원 및 공무원(11)

- | | |
|--------------|-------|
| · 문화경제위원장 | 송 영 진 |
| · 도시건설위원장 | 박 선 전 |
| · 복지환경위원장 | 이 남 숙 |
| ·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 최 서 연 |
| · 의 정 팀 장 | 문 건 영 |
| · 입법정책1팀장 | 안 성 호 |
| · 입법정책2팀장 | 김 현 철 |
| · 주 무 관 | 최 세 인 |
| · 주 무 관 | 조 은 정 |
| · 주 무 관 | 이 지 영 |
| · 주 무 관 | 나 혜 원 |

5. 부의안건

- (1) 2024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1조 심사의 건
- (2) 2024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2조 심사의 건
- (3) 2024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3조 심사의 건

※ 회의록 붙임 참고

제2항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2조 심사의 건」
제3항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3조 심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바로 이어서 제1항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1조 심사의 건」에 대하여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제 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영진 위원장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 제안설명)
- 위원장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형 위원 전주시가 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생태계 구축부터 기획, 제작, 유통 등 전문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화 기반 구축이 미비한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전주시가 바라고 추구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송영진 위원장 지난번 뉴질랜드 쿠메우 스튜디오 건과 연결해 설명드리자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과 같이 전주시가 현재 영화 제작이나 제작사 유치를 할 기반 구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쿠메우 스튜디오가 아시아권 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번 미국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할리우드

제작 기반, 환경 조성, 구축된 시스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의원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통해 우리 시 접목가능한 사례를 도출해내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유남희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지역 생태계와 방문하고자 하는 출장 도시와의 연계가 실제 가능한 부분인지 작년 뉴질랜드 출장건과의 지속적인 연결성과 목적성은 확실히 보여지고 있으나, 뉴욕의 도시를 예시로 들자면 뉴욕의 야간 관광의 규모와 전주시의 규모 및 여건은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전주시의 접목 가능한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진 위원장

현재 전주시의 경우 주요 관광명소가 한옥마을로만 집중, 국한되어있어 집행부,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로 야간 관광 특화 사업을 모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방향성에 대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2022년도 스포츠 관광 관련 주제로 영국·프랑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워블던, 리버풀 맨체스터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방문했던 맨체스터 경기장의 경우도 우리 시 경기장과는 규모 및 시설의 차이가 확연히 컸었지만,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추진으로 이번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북부권 스포츠 관광 테마파크 조성 정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뉴욕과 전주의 지역적인 요소의 차이도 크지만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실현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12대에 들어서 이번이 3번째 공무국외출장인데 갈수록 출장지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성과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진 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다녀온 영국·프랑스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스포츠 관광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 관광 복합 타운 조성이 시장님의 정책사항으로 연결된 성과가 있습니다. 또 전북 현대와 함께 지역 프로구단이 지역 내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 심야 버스 부활, 라이트·인조 잔디 교체 등 시설적 측면에서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도 뉴질랜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당시 방문했던 쿠메우스튜디오와 현재 긍정적으로 투자 협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운영사례 또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우수 정책사례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방문 일정 중 실리콘 비치의 경우 우리시 첨단 벤처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 및 환경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올 계획입니다.

○ 허옥희 위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갈수록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부담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을까요?

○ 송영진 위원장 물론 공무국외출장이긴 하지만, 요즘 항공료 인상 등 부대 경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저

는 개인적으로 의원들도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공무국외출장을 가야 출장의 목적성과 내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형 위원 질의 드립니다. 이번의 경우 기존의 공무국외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1년에 걸쳐서 2~3회 나눠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무국외출장을 가다보니 외부에 봤을 때 의원 공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영진 위원장 일단 비회기 중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잡아보니 앞뒤로 하루 정도 겹치는 조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송영진 위원장님께서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항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2조 심사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선전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 제안설명)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 김진형 위원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보니 전주시의 농업,

도시재생, 교통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가시는건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박선전 위원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의 농업 정책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관련 부서조차도 정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농업 관련 시설 구축 등 여러 방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 시점까지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형 위원 도시재생 분야는 의원님의 전공 분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보시나요?

○ 박선전 위원장 도시재생의 경우 잘 진행되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관련 부서에서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시는 과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발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구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남희 위원 출장 계획을 보니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짜여져있네요. 프랑스의 경우 탄소중립, 재생 에너지를 통한 도시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 사

레 중심의 일정으로 되어있네요. 전주시의 경우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이 실제 유효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미비했는데 지역의 지방 정부가 진행해야 할 에너지 전환에 관한 비율을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요한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내용에 대한 추가적으로 살펴볼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선전 위원장 금년도 공무국외출장은 기존과는 다르게 사전 계획 수립에서부터 수차례 스터디 및 간담회를 통해 세부 출장 주제 및 일정을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제안해주신 정책 사항도 포함해서 스터디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남희 위원

질의와 동시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우리 나라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예산을 다 감당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게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자금을 확보하고 시는 시유지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은 매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관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봐주실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선전 위원장 네 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12대에 들어서 3번째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집행부와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시너지 효과와 또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박선전 위원장 좋은 지적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집행부 출장 동행의 시너지 효과는 비단 국외출장뿐만 아니라 국내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 단독 또는 의회 단독으로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전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동행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에 접목가능한 운영 사례에 대해 연구해올 계획입니다.

○ 허옥희 위원 2조의 경우 기자분 동행이 명단에 포함되어있는데 2조에만 기자단이 포함되어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선전 위원장 기자단 동행 같은 경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동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출입기자단 내부 협의를 통해 조별 기자단 동행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형 위원 저도 기자의 입장에서 3개 조 중에 1개를 골라야 한다고 하면 2조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어야 기사가 나오는데 2조의 경우 현재 전주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재생 문제, 광역망 체계 도입에 따른 교통 정책 사례 등 구체적인 정책사례로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이 확실한 점이 다른 조들과의 차별점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박선전 위원장
님께서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제3항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3조 심사
의 건」에 대하여 최서연 의원님께서서는 제안설명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서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최서연 의원 제안설명)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 질문이나 궁금
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형 위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실제 조례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 최서연 의원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센터나 야호 교육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조례
로 연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동
행하고자 사전 준비를 했었는데, 관련 과 사정으로
인해 이번 공무국외출장 동행은 어렵게 되었습니
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은 자료 활용 및
전주시의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요인보
다 학교 내의 교육보다는 전주시가 추진해왔던 학
교 밖에서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책화하고 조례
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관련 사전 스터
디도 지속적으로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남희 위원 세부 출장 주제에 대한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서연 의원 가장 큰 부분은 환경적 측면에서 소각장이나, 환경

재단 등 관련 기관이 도시의 폐공장이나 유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원화하는지, 특히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 시설, 에코비치 등 도시 자체의 친환경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청소년정책의 경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 등의 우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 유남희 위원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다양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방문시설의 타당성 관련 내용 관련 질의입니다. 헬싱키 친환경 모범도시 등 친환경 도시 정책으로 얻어오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 사례 및 계획이 있을까요?

○ 최서연 의원 에코비치, 헬싱키 시설 환경센터, 도시재생 및 탄소배출이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환경적인 지역사례의 선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한 환경청과의 면담 일정을 통해 정책이 수립된 과정, 구체적인 운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또 집행부 환경 관련 부서에서 동행하는 만큼 관련 협약 추진 등 알찬 출장 일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유남희 위원 친환경 모범도시 측면에서 우리 전주시 실정과 연계해 살펴보고자하는 핵심의제들의 주요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아파트 사례 등 앞서 2조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핀란드의 경우 민간, 지방정부, 시민 참여형 중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 차원의 연구를 해오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서연 의원 생태주거단지 개념 자체에서 시민이 빠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이미 헬싱키는 지역 자체를 자연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그 이후 단계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행정의 역할, 시민의 역할, 환경 전문가들의 역할을 세분화 및 분담해 진행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잘 연구해 많이 배워오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진형 위원 다른 조와 출장주제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보이는 거 같은데, 물론 세부화된 주제는 다른걸로 나와있지만 다른 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겹치지 않게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 최서연 의원 네 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추후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출장일정표를 보면 하루에 2~3건의 일정이 잡혀있는데 하루에 일정 2개 소화하는 것도 힘든데 현재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잘 소화시키고 오실지 우려가 됩니다.
- 최서연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과 같이 저희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1일 1면담 1~2탐방의 일정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